

보도자료



• 문 의 :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김정애

최근 급변하는 미주시장의 효율적 진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효율적인 미주시장 공략 방법과 성공사례, 미주 바이어 상담 진행 -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에서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미주시장의 변화와 시장개척 방법, 미주 시장개척 성공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1일(화) 오후 3:30분부터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본 세미나에는 부산지역 소재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미주시장 판로 개척 방법과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가 주최하고 부산 경제진흥원과 부산시 LA무역사무소가 주관하는 금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 소비자 정서에 맞도록 상품을 만들고 포장해야 한다”고 하는 TS Design 대표 Brian Kim의 “미주시장의 이해와 성공적인 미국 진출 공략법”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수차례 미주 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자기화 해야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구 소재 (주)제일진공펌프 전찬진 상무이사의 “미주 시장 개척 성공사례 (Build Your Own Networks)” 발표가 있는 후 미국·멕시코 등에서 온 바이어들과 함께 미주지역 수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세미나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바이어 상담회(22일, 수요일)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부산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 관계자분들이 참석할 경우 미주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